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군산시, 예방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인원제한 기준 제외

오는 7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6일 강임준 군산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시 및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외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약시절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배지(또는 스티커 등)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되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나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백신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이 가능해진다.

군산시는 25일 오후 6시 기준 1차 2만6,071명과 2차 1만5,130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며 위탁 의료기관 접종대상 예약률은 71%로 전국 60%보다 높은 상황이다.

강 시장은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 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백신접종에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평화육교 7월 개통 막바지 공사 박차

왕복 6개차로 건설 공정률 93% 국가철도공단 공조 체계 구축

익산시는 평화육교의 7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목천동 평화육교는 왕복 6개 차로로 건설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3%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시행처인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공조 체

계를 구축했다. 또 해당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조와 함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평화육교의 오는 6월 말 임시 개통에 이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목천동 목상교에서 평화육교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육교는 오는 7월 중 전면 개통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의 관문인 평화육

교 재가설공사로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참고 견뎌 준 시민들과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5년에 가설된 평화육교는 노후화 상태가 심각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평화육교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7월 재가설 공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

원광대, 2021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에 가입된 전국 111개 대학 469개 운동부에 총 7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KUSF는 최근 2개월간 총 5개 평가 영역, 21개 평가지표, 60개 세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운동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올해 예산을 지원받은 111개 대학이 역대 최대 규모로 혜택을 받게 됐으며, 수혜를 받는 학생 선수는 45개 종목에서 8,123명에 이른다.

대학별로는 최대 1억9,750만원부터 최소 1,15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원금은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대회출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당 평균 지원금이 약 6,900만원인 가운데 원광대는 지난해

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4번째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호남·제주권에서는 가장 많은 1억6,900만원 지원을 통보받았다.

KUSF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 및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원광대 운동부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둬 대학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등 올해도 지속적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원광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군선)이 전국대학 교수노동조합 중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없이 무분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본부와 구성원 조직 간 상생협력을 통한 대학 위기 극복의 초석을 다졌다.

대학·교수노조 협약 체결

원광대, 중재 없이 상생발전 초석 마련

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와 원광대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이군선)이 전국대학 교수노조 중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없이 무분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본부와 구성원 조직 간 상생협력을 통한 대학 위기 극복의 초석을 다졌다. 협약 체결은 박맹수 총장과 이군선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협약을 통해 학교와 노조 양측은 대학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광대 교수노동조합은 2019년 10월 16일 출범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교수노동조합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았으며, 2020년 11월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8회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 총 54개 조항을 합의하고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군선(한문교육과 교수)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전국 교수노조 중

처음으로 대학 본부와 교수노동조합이 분쟁 없이 협약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수노조의 특성을 살려 분류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봉제 교원과 비정년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대학 본부와 교수노조가 함께 만들어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대학 본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 활동에 교수노조 추천 위원을 포함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이 중요하다"며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아울러 대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수노동조합이 건전한 견제와 협조라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도서관·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설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2021년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도서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소리로 여는 시와 그림책 세상' 강화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리로 여는 시와 그림책 세상' 강좌는 설립도서관이 '군산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부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장애인독서문화프로그램-소리로 여는 시와 그림책 세상'은 시와 그림책 낭독, 아로미향과 소리도구를 활용하는 6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월 120분 총 3회 운영된다. 운영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독서문화 서비스 활성화와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설립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설립도서관(☎54-570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 보건소와 함께

군산시 보건소는 아토피 예방을 위해 보습제 지원 및 의료 취약계층 아토피 의료비 지원, 아토피 체험교실, 아토피 예방교육 등 다양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토피는 재발이 잦은 만성 피부질환이다. 보통 유아기에 발생하여 잘 관리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치료 및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소는 만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토피 질환자에게 월 1회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소득 기준: 487만6,000원)가정에 아토피 의료비를 연간 1인당 본인부담금 50만원(최대 5년간)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재미있게 튼튼하게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놀이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나은초등학교 돌봄 교실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아동비행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 놀이터란 영양사가 지도하는 체형형 영양프로그램과 운동처방사가 지도하는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사업 전후 아동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분석해 비만도를 모니터링하며 아동비행을 조기에 예방하는 건강관리사업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숨비꼭질, 딱지놀이 등 교구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건강간식 찾기, 과일과 친해지기 등 6권의 교재를 응용 영양사 생활 교육으로 16주간 진행되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즐겁고 유익하게 건강생활 습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아동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을 통해 아동들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